

최종보고서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정책성등급조사 결과보고서

2024. 8.

提 出 文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정책성등급
조사 결과보고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8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이시욱

요약

1. 행사개요

- 행사명: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 개최시기: 2026년4월10일(금)~5월24일(일) (45일간)
- 개최장소: 세종중앙공원, 세종호수공원, 국립세종수목원 일원
- 행사목적:
 - 기후변화, 도시화 등 전 세계적 문제를 정원과 정원도시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과 국제적 연대를 구축
 - 정원도시 국제전문가들과 정원도시 현황 및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청사진 마련
 - 정원도시의 위상 제고에 기반한 미래 국가의 성장 동력 확보 및 정원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 기여
- 개최 시 기대효과
 - 지역균형 발전과 정원도시로의 패러다임 전환 선도
 - 정원관광 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 유도
 - 국내외 참가자들의 소비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 주요행사:
 - (정원전시) 킬러가든, 플로팅가든, 작가정원 24개(해외 7, 국내 17), 해외도시정원 2개, 지방정부정원 10개, 시민·학생정원 20개, 기업정원 5개 등 61개소¹⁾
 - (전시관) 미래정원관, 가든 파빌리온(정원산업관) 등
 - (학술행사) 국제정원심포지움, CiB 총회, 미래정원포럼, 세미나 등
 - (프로그램) 문화공연, 정원탐방, 체험 및 힐링프로그램, 경연대회 등
- 참여 목표: 총 180만 명(해외 18만 명)
- 행사 주최: 세종특별자치시
- 소요 예산: 총 398억 원 (국비 79.6억 원, 시비 159.2억 원, 자체수입 159.2억 원)

1) 사업비 내역서 자료(5.28) 기준

2. 정책적 분석 개요

가. 행사 개최의 공익성

㉠ 국익과 공익 기여

-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세종시 및 인근 지역의 정원산업 및 녹색관광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STATISTA에 따르면 세계 정원 시장의 매출액이 2020년 2,977억 달러에서 2028년 3,93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²⁾되며, IMARC³⁾는 세계 생태관광(Eco Tourism) 시장 규모가 2022년 1,724억 달러에서 2028년 3,742억 달러로 연평균 13.9% 성장할 것으로 기대⁴⁾
 -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세종시의 조경수 생산 비중은 3.1%(115만 그루), 화훼 재배면적 비중은 1.6%(66.8ha)를 차지
- 동 박람회를 비롯하여 순천만, 안면도 등 연관 국제행사는 국내 정원의 활성화를 통한 복지자원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만의 차별화된 기여에 대한 고민도 필요
 - 산림청은 「제6차 산림기본계획」, 「제2차 정원진흥 기본계획(2021~2025)」 등에서 ‘정원 활성화를 통한 복지자원의 확대’를 추진
 -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로 공원·녹지·산책로가 2021년 및 2023년 연속 2위를 차지했으며, 과거 대비 수요가 크게 증가

2) STATISTA(2024), Annual revenue of the lawn and garden market worldwide from 2018 to 2028(in billion U.S. dollars) 참고. <https://www.statista.com/forecasts/1468555/revenue-of-the-global-lawn-and-garden-market> 접속일: 2024.6.4.

3) IMARC(The International Market Analysis Research and Consulting Group)는 글로벌 시장분석 연구 및 컨설팅 전문 기업임. <https://www.imarcgroup.com/about-us> 접속일: 2024.6.4.

4) STATISTA(2024), “Sustainable tourism worldwide”, p. 3, Market size of the ecotourism sector worldwide in 2022, with a forecast for 2028 (in billion U.S. dollars) 참고.

<삶의 질 개선 관련 국민 인식: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주응답)>

- 2017~23년 모두에서 보건의료시설이 더 확충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1위를 차지
- 공원·녹지·산책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017년 4위(16.0%), 2019년 3위(15.9%), 2021년 2위(19.6%), 2023년 2위(17.1%)

- 동 박람회는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위상제고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원도시의 롤모델 제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세종시 건설의 정책목표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수준을 향상시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모범도시로 조성”으로 설정(「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계획 변경」(2023))
 - 국정과제 116(지역 성장거점 육성)의 목표(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에 의거, 특히 정원·마이스 산업 등 신성장산업 생태계 발전으로 행정수도 자족기능을 확충하여 국가균형발전도시로 성장에 기여
 -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2023,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 산림청) 등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흡수원으로서 도시숲 조성을 추진

<관련 설문조사 결과>

- 우리나라가 정원도시를 육성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73.2%가 긍정 응답
- 행사목적의 국익·공익적 기여: 3개 행사목적에 대해 63.9~70.5% 긍정 답변
- 긍정적 효과의 범위: 세종 36.8%, 충청 14.4%, 전국 30.0%, 전세계 11.9%
- 동 행사의 정책기여에 대해 (1)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63.6%, (2)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행정수도 세종 완성) 54.8%, (3)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54.0%, (4)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 체계 강화 49.5% 긍정 응답

② 개최목적 달성 가능성

- 국내외 관련 기업, 전문가 집단, 일반시민 관람객, 외국인 관람객 등 행사 참여자의 유형에 따른 요구사항, 산업의 특성 및 소비 패턴의 변화 등에 관한 충분한 고려와 함께 추가적인 제언이 반영된다면 기획한 행사장의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개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기후변화, 도시화 등 전 세계적 문제를 정원과 정원도시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과 국제적 연대를 구축: 행사장(정원존, 수목원존, 생태존)의 운영을 비롯하여 공연행사·이벤트(국제기념일 행사), 문화·체험행사 (Active, Healing, Creative), 국제·국내 학술회의 등을 통해 동 개최목적의 달성이 기대되나, 행사장의 관문인 주제존에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는 보완이 필요
- 정원도시 국제전문가들과 정원도시 현황과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청사진 마련: C.i.B 정원도시 총회, IGTN 총회, 국제정원 심포지움, 미래정원 문화포럼, 미래정원 정책포럼, 미래정원 기술 포럼 등의 국제회의와 정원정책포럼 등의 국내회의 등을 통해 개최 목적의 달성이 기대되나, 국제·국내 회의의 주제 차별성 강화, 유사 회의 통합, 불필요한 행사 제외 등이 필요
- 정원도시의 위상 제고에 기반한 미래국가 성장 동력 확보 및 정원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 기여: 가든 파빌리온을 활용한 정원산업체·기관의 전시·홍보·판매, 비즈니스데이 개최, 미래정원 기술 포럼 개최, 연계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개최목적의 달성이 예상되나 국내외 정원산업 관계자 간 교류 활성화 및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 운영확대를 검토할 필요

<관련 설문조사 결과>

- 프로그램별 행사 개최 목적 달성 가능성에 대한 전국민 인식
 - 정원 전시 69.6%, 산업 행사 중 전시 58.0%, 산업 행사 중 교류 58.6%, 국제화 행사 54.7%, 문화 체험 행사 66.9%, 학술 행사 51.5%, 공연/이벤트 63.9%, 연계관광 프로그램 63.3% 긍정 응답

③ 주무부처 정책과의 연계성

- 본 행사는 주무부처인 산림청의 「제6차산림기본계획」(산림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과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2021~2025)」을 비롯하여 현 정부의 국정과제(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116번) 및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86번)) 추진과 연계

- 산림청은 「제6차산림기본계획」 하에서 복지자원의 확대와 산림기반 융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해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및 산업화 지원 등으로 정원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접할 수 있는 정원’이라는 비전 하에 4대 전략(정원을 통해 도시를 녹색생활공간으로 전환, 정원산업 생태계 구축 및 성장역량 강화, 미래 수요에 대비한 맞춤형 정원 인재 육성, 국민 누구나 누리는 생활 속 정원문화의 확산)을 마련하고 13개 중점과제를 추진 중인 바, 세종시의 동 국제행사는 주무부처인 산림청의 추진 정책에 부합
- 또한 동 국제행사는 정원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정원의 확충을 통한 탄소중립녹색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바, 현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 중인 국정과제 116번(국토부 소관)의 주요 정책 중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국정과제 86번(환경부·국조실 소관)의 ‘지역·국민 탄소중립 실천’, ‘녹색산업·기술육성’과 밀접하게 연계

4 주관기관 중장기정책과의 연계성

- 본 행사는 세종시가 추진해 오고 있는 정원 진흥 및 관련산업 육성,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중장기 정책에 직접적으로 연계
- 세종시는 정원문화 활동 육성과 이를 지원하는 시설 및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1~2025 제2차 세종시 정원진흥 실시계획」(2021)을 수립·시행하고 있고, 미래성장 동력 확보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가능한 정원도시를 조성하고자하는 「「정원 속의 도시 세종」 구상(2023~ 2026)」(2023)을 추진하고 있는 바, 세종시에서 개최될 예정인 이 행사는 이러한 정책에 부합
-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에서 탄소흡수원의 확대 전략과 밀접하게 연계
- 「세종특별자치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2023)를 제정하고 전담기구로서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을 지정했으며, 장기적으로 박람회장(국립세종수목원 회의시설) 및 인근의 시설(정부세종컨벤션센터, 신라스테이 등) 활용방안 마련 및 추가적인 호텔 유치 등을 통해 마이스시설 건립·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

나. 행사 계획의 우수성

① 행사계획 실현 가능성

- 전반적인 행사계획, 행사장 조성, 공연행사 및 이벤트 등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나 학술회의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 수립 필요
 -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진행 상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행사장 대부분은 기존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공연행사 및 이벤트는 각 행사 목적에 부합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음.
 - 학술회의는 회의별로 구체적인 주제, 프로그램, 장소 등 계획 수립이 미진

② 개최시점 적절성 / 필요성 / 중복성

- 2026년은 「정원속의 도시 세종」 프로젝트의 실천과제 대부분 완료되며, 2027년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개최되어 2년 연속 국제행사 개최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어 2026년은 개최 시기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
 - 2026년 개최시 중앙공원 2단계 예정지와 인근 국책사업 부지를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무상 활용 가능하여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음.
- 세종시민 및 충청권 국민의 정원 여가선용 및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2030 국가정원 지정 추진을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본 박람회 미개최 시 유사행사 필요

<관련 설문조사 결과>

2026년 개최의 적절성, 미개최시 유사행사 필요성

- 전국민 84.8%, 세종 90.7% 긍정 응답, 전국민 75.6%가 미개최시 유사행사 개최 희망

- 본 박람회는 개최시기가 중복되는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와 박람회의 성격 및 구체적인 대상 산업이 차이 나지만 꽃과 나무를 소재로 한다는 점에서 대상 산업이 유사

- 두 박람회의 주관기관인 세종시와 충청남도는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박람회 연계사업 추진, 발전방안 논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으나 본 박람회만의 독보적인 요소를 확보할 필요

③ 내외국인 유치 현실성

- 내외국인 관람객 수요를 2단계에 걸쳐 예측하여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관람객 대상별로 유치전략을 수립하는 등 유치계획은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으나 외국인 관람객 수요예측은 과대계상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해외 VIP 및 외빈은 1만 명으로, 일반 외국인 관람객은 17만 명으로 목표 관람객 수를 설정하였으나 현실성 있는 유치계획 수립으로 실현 가능성은 높일 필요
- 외국인 관람객 수요예측 시 사용한 세종시 인접지역의 외국인 방문객 수는 자료에 따라 편차가 크며, 유사행사의 외국인 관람객 수도 많지 않은 상황임.

④ 홍보 적절성

- 관람객 유치목표 달성을 위해 시점별로 5단계에 걸쳐 홍보방안을 수립하고 지역별 및 대상별로 홍보매체의 파급력과 특성을 고려한 홍보방안을 수립하는 등 홍보효과를 높이는 노력을 함.
- 유사행사의 경우 수도권 지역으로부터의 방문객이 적었으므로 이를 고려한 수도권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홍보전략 수립이 필요

⑤ 과거 주관기관 유사행사 경험 반영

- 과거 주관기관 유사행사인 「2022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와 「2023 세종 가든쇼」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반영하여 홍보전략을 연령대별로 차별화하고, 방문객의 순간 밀집을 방지하기 위한 인파관리 체계를 구축
- 다만 수도권에 대한 추가적인 홍보전략, 참가기업 확대 방안, 관람객의 동시 퇴장 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에 대한 대응 방안은 미진

⑥ 시설물 활용 계획 합리성

- 본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인 세종중앙공원, 세종호수공원, 국립세종수목원 일원은 이미 조성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 곳으로 다수의 기존 시설물이 있으며, 본 박람회에서는 이들 시설물을 적절히 활용할 예정입니다.
- 본 박람회를 통하여 조성된 잔존 시설물(정원)에 대해 시설물별로 세부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사후관리 비용과 비용 조달계획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함.
 - 더불어 본 박람회 행사장의 지방정원 등록·운영 및 국가정원 추진을 위해 조직체계를 구상

다. 주관기관 등 관리역량 및 지역주민 여론

① 행사주관기관과 당해 행사 사이의 역사·문화·지리적 연계성

- 세종시는 2017년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정원산업 육성, 정원문화 확산 등의 정책 및 관련 행사를 추진해오고 있고, 호수·중앙공원, 국립세종수목원 등의 중앙녹지공간을 보유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개최하려는 세종시는 역사·문화·지리적으로 연계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21년에 마련한 「제2차 세종시 정원진흥 실시계획」(2021~2025)에서 4대 전략 및 12개 과제를 선정하고, 정원 분야의 지역단위 산업화 구축(정원산업 육성), 정원 관련 행사 개최*(정원문화 확산) 등의 사업을 추진 중
 - * 2021~24년 아름다운 정원 경연대회, 2022년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코리아가든쇼 포함), 2023년 세종가든쇼 등 개최
 - 세종시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3대 특화정원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2017년 설립), 국립세종수목원(2010년 개원) 등의 정원 관련 시설이 입지하고 있음.
 - * 대규모 중앙녹지공간, 높은 녹지율(52%), 전국 1위의 묘목 생산량

② 행사장소의 접근성 확보 정도

-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전국에서 도로·철도를 통한 교통 접근성이 좋은 편임(전국 대부분 2시간 내외 접근이 가능).
 - 주요 도시와의 거리: 서울 115km, 대전 30km, 부산 225km, 광주 165km, 대구 140km, 청주 20km 등
 - * 고속도로: 경부고속도, 호남고속도로, 대전-당진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 * 철도: KTX, SRT, 일반철도 경부선
 - * 국도: 1호선, 36호선
- 또한 현재 건설 중인 서울세종고속도로(포천-구리-성남-안성-세종)가 예정대로 2025년 개통될 경우 서울-세종 최단 거리가 70분대로 단축되면서, 2026 행사 개최 시 세종시에의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③ 행사주관기관이 동종 또는 유사행사를 개최하여 성과를 달성했는지 여부

- 상기 「제2차 세종시 정원진흥 실시계획」(2021~2025)에 의거하여 정원문화가 꽃피는 ‘정원도시 세종’을 위해 2022~23년에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세종 가든쇼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다수 관람객 방문, 조경수·화훼 농가 수익 달성, 시민봉사단 참여 등 2026 행사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성과를 축적함.
 - 「2022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중앙공원에서 10.7[금]~16[일](10일간) 오픈가든 페스티벌, 정원산업세미나, 개폐회식, 코리아가든쇼, 반짝정원 경연대회, 국내 및 국제 정원심포지엄 등 개최; 약 44만 명 관람객 방문(일반관람객 62%, 정원산업관계자 29%, 단체 7%, 외국인 2%), 총매출액 30억 원(정원산업전 18억 원, 세종관 6억 원, 푸드트럭 6억 원) 등 달성⁵⁾
 - 「2023 세종 가든쇼」: 중앙공원에서 5.19[금]-21[일](3일간) 정원 전시, 정원장터, 부대행사 등 개최; 약 3만 명 관람객 방문, 시 조경수·화훼 농가 참여로 4,731만 원 수익 달성, 시민봉사단 100명 및 세종시 문화재단·산림조합 등 시민·기업 참여

5) 세종특별자치시. 2022. 『2022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 pp. 266~267.

- 다만 이러한 성과는 국제행사가 아닌 국내행사를 통해 달성된 것이므로, 향후 국내외 유수의 유사 국제행사 사례를 적극 참고하여 2026 행사의 개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④ 행사 개최를 위한 인프라 확보의 충분성

- 세종시는 중앙녹지공간(호수·중앙공원, 국립세종수목원) 보유, 시 전체 녹지율 52% 확보, 도농복합도시의 특색과 조경수로 특화된 시장 형성 등 행사 개최를 위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됨.
 - 중앙녹지공간은 호수공원 약 70만㎡, 중앙공원 138만㎡(순천만 국가정원 약 93만㎡), 국립세종수목원 65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최대의 묘목 생산량(70%)을 차지하는 세종시 전의면은 2024년 기준 17년째 묘목 축제를 개최해오고 있음.
- 기존 유사 행사 개최 시 발생한 주차·교통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도 면밀하게 수립함으로써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
 - 「2023 세종 가든쇼」 개최 시, 방문객의 일시 밀집으로 주차, 교통 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노정된 바 있음.⁶⁾
 - 세종시는 2026년 행사 개최를 위해 시 외곽에 새롭게 주차장 9,000면 조성, 가로등 및 표지판 설치, 사후 철거 등 임시 주차장 확대를 목적으로 46.8억 원을 배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프라 확보뿐만 아니라 다수 관람객이 방문하는 특정 요일 및 시간대를 고려한 대중교통 및 주차 관리 계획수립 등 상세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⑤ 중앙부처 및 광역·기초 지자체 간 협의의 충분성

- 세종시는 2023년 6~8월에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기본구상 수립과 관련하여 산림청, 행복청,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세종수목원 등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함.

6) 「세종시 '가든쇼+ 낙화축제' 역대급 관람 인파... 호된 신고식」(2023. 5. 22). 디트NEWS24(<https://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46095>, 검색일: 2024. 6. 12); 세종특별자치시. 2023. 「2023 세종 가든쇼 개최결과 보고」. p. 3.

- 또한 2024년 3월에 산림청, 국립세종수목원 등을 대상으로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종합실행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다른 박람회와의 차별성 강조, 가든샵 조성 등의 정책적 제언을 받았음.
- 이외에도 2024년 4월 읍면동 100대 마을정원 조성계획(‘세종시 아름다운 정원 경연대회’ 홍보 포함)에 대한 읍면동장 회의를 개최하였음.
- 세종시는 2024년 3월에 충남도와 2026 국제행사(세종국제정원박람회 및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연계방안 마련에 대해 협의하고, 세부행사계획 조정, 공동 자문단 운영, 홍보·유치·수익사업 공유 등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기로 함.
- * 양 기관은 2024년 2월에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⑥ 지역주민 및 민간기업과의 협의

- 세종시는 2023년 6월에 29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정원친화도시 세종’ 민간추진연합회(수목관리·경관분과 등 3개 분과)의 발대식을 개최했는데, 이를 통해 시민주도의 박람회 지원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2024년 들어 세종보 정비와 관련해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바, 이것이 2026 행사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대응할 필요
- 세종시는 2024년 3월 세종상공회의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지회, (사)세종여성기업인협의회 등의 3개 경제인단체와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기업 참여 및 홍보 지원, 기업정원 조성 및 행사 프로그램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함.

㉗ 행사 개최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

- KIEP 설문조사(2023.6, 세종시민 대상)의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가 추진하는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지지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 답변*이 66%로, 부정적 답변(4%)**에 비해 지지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남.
 - * 긍정적 답변 66.0% = ‘적극 지지한다’ 18.3% + ‘지지한다’ 47.7%
 - ** 부정적 답변 4.0% = ‘지지하지 않는다’ 3.7% +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0.3%
- 다만 지지도 답변 중 ‘보통’ (30.0%)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는바, 홍보계획 강화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지지도를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음.

라. 국고지원 요구의 적절성

㉑ 국고지원 불가피성 사유

- 주관기관의 재정여건과 가용재원의 제약, 행사 개최의 공익성과 기대효과 등을 감안하면 국고지원 요청의 불가피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세종시는 재정자립도가 여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지만(단,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과 유사)78), 세종시의 연간 행사·지출액 규모가 크지 않아(2023년 63.9억 원(세출예산액 대비 0.4%), 2019~23년 평균 66.1억 원) 동 행사사업비(총 398.0억 원, 수입금 제외 238.8억 원)를 모두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
 - 아울러 동 행사를 통한 국가·행정수도 위상 제고, 국가 전체의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탄소흡수원 확충 등 공익적인 측면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

㉒ 국고지원 수준 적절성

- 이 행사의 국고요청액 79.6억 원(전체 사업비의 20%)은 유사행사인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73억 원, 15%),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147억 원, 30%), 「2026 태안 국제 원예치유박람회」 (44.2억 원, 20%) 등과 비교해 과도한

7) 통계청의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세입과목 개편 후 재정자립도 기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45.0%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순위는 1위 서울특별시(75.4%), 2위 경기도(60.5%), 3위 세종특별자치시(57.2%), 4위 인천광역시(52.4%) 등임.

8) 통계청 e-지방지표에서 제공되는 재정자주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평균 재정자주도는 74.1%이며 세종특별자치시는 76.1%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행복도시 조성단계에서 이미 상당한 국고가 투입되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

- 재개최 행사는 기조성 인프라의 활용 등으로 사업비를 포함한 국고요청액이 감소하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순천만과 태안(안면도)의 경우 최초 행사(2013년, 2002년)에서 국고요청액이 각각 217억 원(17.3%)과 122억 원(42.8%))⁹⁾

<관련 설문조사 결과>

· 본 행사의 국고지원 필요성 및 지원 규모에 대한 전국민 인식
- 국고요청액 79.6억 원(비율 20%) 적절 45.2%, 인상 16.2%, 축소 19.9%, 불필요 8.4%

- 동 행사의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원존 조성 등 행사장 조성 계획을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유사 행사와의 차별성을 강화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행사 입장객 유치 목표(180만 명) 달성 전략 강화, 새롭고 다양한 행사 수입원(특히 수익사업) 확충 등을 통해 사업비에서 국비 및 시비를 추가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

3. 사업비 분석

□ 본 행사의 총사업비(398억 원)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 적정 행사비는 38,438,595,547원으로 1,361,404,453원 감액 (검토율 96.58%)

- 총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원 등 조경공사 금액은 식재대상에 따라 금액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는 분야로 주관기관은 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성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
- 행사비 등 일부 임차료는 과다하게 계상된 반면, 행사안전관리인원 등은 다소 과소 계상

□ (조성비) 정원존 조성, 주제존 조성, 생태존 조성, 기반시설 조성(임시주차

9)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개최 기간은 6개월,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개최 기간은 26일이었던 사실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장 등)으로 구분되며, 세부 설계도면 및 설계내역서가 부재하여 2024년 국토교통부고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908,819,993원 감액

- 랜드아트 정원조성 등은 2024년 표준조성비 고시를 준용한 결과 일부 증액이 필요하며, 수직정원 등 기본 및 실시계획이 구체화 되기 이전의 경우 유사항목(예, 이음정원)의 중분류 검토율을 적용한 바 2026년 행사개최 시점에 변경가능성이 존재
- 지방정부 정원, 기업단체 정원의 경우, 지자체와 기업의 자체 비용으로 조달할 계획인 바 0원으로 산정

□ (행사비) 공연 행사/이벤트, 컨퍼런스 등으로 구분되며, 총사업 계획금액 (2,916백만 원) 대비 213,042,238원 감액

- 무대설비, 개막식과 폐막식의 사전공연 등은 전문업체의 견적금액을 비교하여 적용했으며, 정원도시 국제사진 공모전, 세계정원케이크 대회 재료비 및 운영비의 경우, 시상금 등이 포함된 정책성 비용으로 주관기관의 개최계획을 준용
- 비즈니스 day 장소 대여비는 정부세종컨벤션 센터의 표준대관료 고시단가를 적용하여 대폭 하향 조정

□ (운영비) 행사진행과 조직위/인력운영으로 구분되며, 총사업 계획금액 (7,032,160,000원) 대비 149,651,600원 감액

- 입장권 판매대행의 경우 판매 목표금액 및 판매 대행수수료율(6%)을 적용했으나, 실제 판매금액을 사전에 특정할 수 없으므로 주관기관 계획금액을 준용
- 각 중 행사진행에 투입되는 인력에는 공임단가를, 전담콜센터 운영에는 유사사례인 JPDC 5인 규모 고객센터 운영비를 참조하여 적용

□ (홍보) 홍보는 홍보물 제작과 온/오프라인 홍보, 홍보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언론인/사업가/전문가 초청 경비 등으로 계획되었으며, 총사업 계획금액(1,691,000,000원) 대비 30,415,504원 감액

- 홍보영상 및 스포트광고영상 제작과 이모티콘 개발 등은 전문업체의 견적금

액과 비교하여 적용

□ (세종-태안박람회 국제행사 연계) 세종-태안박람회 투어버스/셔틀버스, 관
광객 유치 인센티브, 입장권 및 판매/홍보부스의 공동운영비 등으로 계획
되어 있으며, 총사업 계획금액(424,800,000원) 대비 7,645,966원 감액

- 유치 인센티브는 2026 충청권 국제행사 연계방안 추진계획에 따른 수량에
부합하도록 재산정하고, 차량임차료 등은 원가산출 후 50% 분담율을 적용

□ (예비비) 총사업비에서 예비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예비비의 계획요율
은 2.3%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51,829,152원 감액

〈사업비 적정성 분석 결과〉

(단위: 원)

항목	계획금액(A)	검토금액(B)	증감(B-A)	검토율(B/A)
조성비	26,760,000,000	25,851,180,007	-908,819,993	96.60%
행사비	2,916,000,000	2,702,957,762	-213,042,238	92.69%
운영비	7,092,160,000	6,942,508,400	-149,651,600	97.89%
홍보비	1,691,000,000	1,660,584,496	-30,415,504	98.20%
세종-태안박람회 국제행사 연계	424,800,000	417,154,034	-7,645,966	98.20%
예비비	916,040,000	864,210,848	-51,829,152	94.34%
총사업비	39,800,000,000	38,438,595,547	-1,361,404,453	96.58%

4. 종합 평가 및 결론

□ 본 행사의 정책성은 준수한 수준이며 행사개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있
는 것으로 평가

- 「국제행사관리지침」에 명시된 평가기준을 토대로 전문가 8인에 의한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정책성에 대한
종합평점은 72.09점(100점 만점)으로 도출

〈AHP 평가자 8인의 평가 결과〉

평가항목	배점	평점	종합평점	
			원점수	표준화 점수
행사개최의 공익성	30		23.56	78.54
행사개최 목적의 국익·공익에 대한 기여도	12.19	0.7600	9.27	76.00
행사 프로그램을 통한 개최목적 달성 가능성	7.70	0.7538	5.80	75.38
주무부처 정책과의 연계성 확보 정도	2.81	0.7568	2.13	75.68
행사주관기관의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7.30	0.8720	6.36	87.20
행사계획의 우수성	30		21.87	72.90
행사계획의 실현 가능성	7.07	0.7947	5.62	79.47
행사개최 시점의 시의적절성	2.68	0.7598	2.04	75.98
당해 행사 미개최시 유사행사 개최 필요성	2.50	0.7187	1.80	71.87
같은 시기 유사행사의 중복 개최 여부	2.72	0.4495	1.22	44.95
내외국인 유치계획의 현실성	2.63	0.5609	1.48	56.09
행사목적 달성을 위한 홍보계획의 적절성	2.59	0.6216	1.61	62.16
행사주관기관이 과거에 개최한 유사행사 경험이 당해 행사 계획에 반영된 정도	2.42	0.7016	1.70	70.16
시설물 활용계획의 합리성	7.39	0.8680	6.41	86.80
주관기관 등 관리역량 및 지역주민 여론	20		14.87	74.33
행사주관기관과 당해 행사 사이의 역사·문화·지리적 연계성	3.08	0.7256	2.23	72.56
행사장소의 접근성 확보 정도	3.49	0.7287	2.55	72.87
행사주관기관의 동종 또는 유사행사 개최 실적 및 성과	2.20	0.6770	1.49	67.70
행사개최를 위한 인프라 확보의 충분성	5.03	0.8740	4.39	87.40
중앙부처 및 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	1.60	0.7306	1.17	73.06
지역주민과 민간기업 등의 참여를 위해 적절한 사전협의를 이루어졌는지 여부	2.23	0.6469	1.44	64.69
지역주민들의 해당 행사 개최에 대한 지지의 충분성	2.37	0.6715	1.59	67.15
국고지원 요구의 적절성	20		11.79	58.95
국고지원이 불가피한 사유의 적절성	13.15	0.6432	8.46	64.32
국고지원 요구 수준의 적절성	6.85	0.4864	3.33	48.64

주: 배점은 「국제행사관리지침」에 명시된 점수로 하위배점의 합에 해당함. 평점은 AHP평가에서 도출된 평가자의 항목별 평가점수에 0.1점을 더하여 0.1부터 1점까지의 스케일로 전환함. 항목별 종합평점의 원점수는 항목별 평점과 배점의 곱한 값이고, 표준화점수는 이를 100점 스케일로 전환한 점수임.

□ 본 행사의 성과 제고를 위한 보완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제안

- 국제전문가들과 정원도시에 대한 청사진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행사개최 목적에 부합하도록 프로그램 구체화 및 수정 필요
- 세종시에 걸맞는 정원도시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롤모델을 제시하기 위

해서는 아직 미정인 국제 학술행사의 주제를 조기 선정하고 원예, 정원 관련 유사행사들과 비교해 본 박람회만의 차별화된 요소를 확보할 필요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외 정원산업 관계자 간 교류 활성화 및 비즈니스 기회 창출이 중요한 바, 가든파빌리온과 비즈니스 day운영 확대를 고려할 필요

- 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필요

- 예상 방문객 수 달성을 위해 특히 수도권 및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유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비교적 장기에 걸쳐 개최되므로 시기별 거점별 다채로운 행사로 재방문 유도도 필요
- 방문객 부족으로 인한 입장료 수입부족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다양한 행사 수입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 긴급 상황(자연재해, 개화 시기 실기, 정원손상 등)에 대한 유연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
- 숙박시설 및 대중교통에 대한 현실적인 확충방안을 검토하고, 방문객의 순간 밀집으로 인한 주차와 통신, 교통관리 체계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
- 행사의 취지와 의의가 퇴색되지 않도록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행사 기간 숙박·음식료비 등 행사장 주변 물가 안정 대책을 사전에 마련
- 작가정원 공모, 지방정부 정원 및 기업단체 정원 조성, 참가기업 확보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 2026세종국제정원박람회는 2026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와 개최시기가 중복되어 목표관람객(전체 180만 명) 달성이 우려되는바, 양 기관 간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세부행사계획 조율, 홍보·유치 사업 공유 등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고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

- 박람회 개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람객 유지와 도시정원으로서 세종시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박람회와 실생활을 연계

- 시민과 업계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은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뿐 아니라 박람회 이후 세종시가 정원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순천만의 성공사례를 참고하고 시민들의 정원관련 취미생활 활성화와 마을정원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방안 마련